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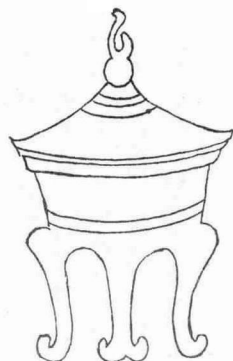
字形으로 胸部를 露出시킨채 무릎밑까지 垂下하였다. 兩足を 내놓고 있는데 右足은 後補이다.

二、石燈

火舍石以上이 缺失된 四角形의 石燈으로서 複瓣으로 伏蓮 仰蓮이 날카롭고 迫力있는 솜씨로 表現되었다. 下臺石에는 三段의 받침이 있고 四角竿柱上에는 二段의 받침이 있는 中臺石이 있다. 高麗의 典型的인 作品이다.

三、三層石塔

佛像에서 東北約七m地點에 있다. 三層屋蓋石以上을 缺한 것으로 數年前까지는 完全하였다 한다. 本塔의 地覆石은 自然石이며 四枚의 面石으로 基壇을 構築하였는데 北面의 一枚가 缺하였다. 東面과 西面의 面



S=10:1

石에는 各各 香爐를 陰刻(圖面參照)하였는데 이러한 예는 매우 드문 것으로서 재미있는 資料인 듯하다. 面石은 隅柱를 兼備하고 甲石에는 一段의 塔身받침이 있다. 一層塔身의 四面에 四天王을 浮刻하였는데 約十cm 가량 突出되어 있으나 磨滅이 甚하여 細部

肉髻을 兼하고 있다. 머리는 素髮이며 白毫孔이 있고 兩耳는 길게 처져 있으며 慈容은 豐滿溫和하며 목에는 굽은 三道가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胸上에 올려놓은 右手의 손뭉을 덮고 與願印의 左手에 걸친 衣端은 U

를 알 수 없다. 屋蓋받침은 三段이며 落水面隅棟 轉角을 다듬은 手法은 매우 둔하고 투박하게 보여지며 塔身自體를 보아도 幅과 높이의 比例가 좋지 않아 不安全한 感覺을 주며 縮少率도 甚하다. 塔은 南南東을 向하고 있다.

以上の 作品中 佛像과 石燈은 彫飾으로 보아 高麗初期로 推定되며 塔은 高麗中期以後의 것으로 보여진다.

佛像 全高 四·三四m 身高 三·八一m 石燈高 一·二七m 石塔全高 二·九五m 地覆石幅 一·八八m

人面鬼瓦의 一例

張 南 植

慶州 月城內에서 出土되었다는 灰白色 土로 된 이 鬼面瓦는 縱十七cm 橫二十二cm 厚 四cm로서 底面이 平面이고 左右兩側に 同一한 文樣으로 流雲文같은 것이 簡略하게 있으며 上半中央에 구멍이 있고 左右에 銳利한 齒牙같은 모양을 陽刻하고 其下는 雲文을 넣은 듯한데 不幸이도 左上部가 缺損되었으나 原狀



을 聯想할 수 있다.

이 鬼面瓦에서 特히 興味를 끄는 것은 下部中央에 半圓形人面을 實寫的으로 넣고 그 周邊에 雲文等을 配置한 것이다. 顔面은 陰刻으로 極히 拙劣한 戲畫的인 手法인데에 더욱 興味를 들군다. 人面瓦는 日人有光氏가 慶州與輪寺址에서 發見한 것이 있을 뿐이며 鬼瓦에 이러한 顔面이 들어 있는 것은 只今까지 그 例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慶州博物館藏)

〔註〕 京都大學版 新羅古瓦의 研究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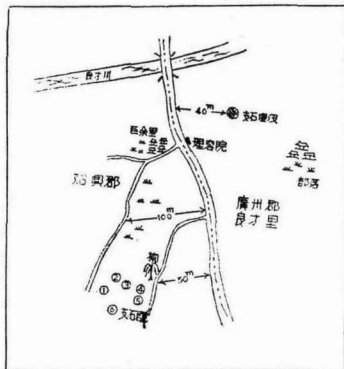
現高一七cm 幅二三·五cm 厚(下端)四·五cm

京畿 始興郡內 支石墓

金 武 龍

一九五八年 六月 八日과 一九五九年 四月 五日의 兩次에 걸쳐 始興郡 新東面 良才里와 牛眠里所在 支石墓를 調査하였다.

良才里支石



良才川 南方約 百m 地點에 꽤 넓은 空地가 있어서 잔디밭이 있는 곳 에 支石이 埋沒되었다. 그 分布狀態는 圖面과 같으며 型式은 北方式에 屬한다고 본다. 一號의 蓋石은 不定形橢圓形으로 西側은 地面에 接하였고 東側이 六·七cm의 높이로 撐石이 받쳐있다. 坐向은 東南向이다. 其他는 一部埋沒되어 構造不明이며 實測 值(m)는 다음과 같다.

蓋石長	蓋石幅	蓋石厚
一號 四·五	二·八	〇·四五
二號 二·四五	一·四	不明
三號 三	二·三五	不明
四號 三·六	二·四	〇·七

五號 四號支石의 足石?

六號 二·三 一·九 〇·三

이 支石은 「괴바위」라고 부르며 이는 「고인바위」의 준말이며 이 洞里는 巨餘里인데 「계리」라 俗稱함은 興味있는 일로서 「巨餘」의 「거여」와 「고여」가 語音上 비슷한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 洞里에서 年一回 道장祭(山神祭)를 지낸다고 한다.

牛眠里支石

良在里 支石所在地 西南쪽 山麓에 典型的 北方式 支石이 있다. 이 附近에서는 俗稱 「고름장바위」라고 부르며 支石 바로 위에는 屏風같은 바위가 돌러있음은 이상스러웠다. 蓋石長 三m, 幅 三m, 厚 〇·五m이며 地上高는 〇·七m이다. 高 〇·七m의 二個의 定石 밑에는 石室이 있어 長 一·七m, 廣 一·三m이며 坐向은 正南向이다.

資料

◎ 帆船文수기화

張 南 植

今春 慶州 金庚信墓附近에서 發見되었는데 一端에 橫으로 上下二列로 帆船文을 積었는데 上列에 五隻 下列에 六隻이 있다. 그 밑에는 波狀文이 있고 表面에는 波濤文、菱形文、裏面에는 布目文이 있다. 아마도 護骨用으로 쓰이던 것이 아닐가 한다.

長 三六cm 厚 二·八cm 幅 二·三五cm 一〇cm

考古美術 卍—스

◎ 蔚山古墳發掘

國立博物館에서는 蔚山郡 溫陽面 三光里 貴旨部落 송나산에 散在한 約 六·七十基의 古墳을 整理하고 있는데 十月末 現在 臺付長頸壺, 臺付埴, 高杯, 帶狀肥